

2019년 7월 16일, 서귀포시 천지동 천지동노인회관, 류진옥 조사.

김기정(여, 1933년생, 서귀포시 천지동)

- 제주시 출생으로 어릴 적 일본에서 살다 돌아와 22세에 결혼한 후 현재까지 천지동에서 살고 있다.

• 줄거리: 장팽이 약 묻은 콩을 먹고 죽은 다음 암팽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두꺼비를 만났다. 두꺼비가 공부를 많이 하여 배가 불렀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좋아서 함께 살았다.

[제보자] 팽이 두 부처가 사는데 혼 번은 수팽이 어디 간 보난, 콩 혼 방울이 떨어졌더래. 콩 혼 방울이 떨어지니

“아이고 이거, 난디 난 놈 좇복이냐, 집이 든 년 신복이냐.”

허멍 좇어 먹으난, 오꼴 약칠헌 거 죽어불언. 팽이 장팽이.

죽어부난 암팽은 덩기다네 장팽 죽어부난 혈 수 엇이 못 사난 배 고평디 나룩빳데 나룩 좇어 먹으려 갓단 벌거지헌티 걸려네 나룩 벌거지가

“나하고 곶이 살겐?”

경허난, 난 그런 벌거지랑 안 산덴, 안 산덴 헨 이젠, 이디 저디 암팽은 덩기다네 어디 막 물 길어나네 물 길어단 이제 물 먹었이난 두테비가 나오나네

“팽 아주마시, 팽 아주마시 나영 살기 어떠해요?”

“어떻 해서 손은 그렇게 벌어졌어요?”

“너무 부끄러워부니까 손이 이렇게 벌어졌어요.”

“배는 무사 게 불었이니?”

허난

“공부를 너무 많이 해 부난, 배운 것이 많아부난 배가 이렇게 불었어요.”

경허난, 그것이 좋아네, 그 팽허고 두부처 살앗덴.

[조사자] 뽕하고 두테비하고?

[제보자] 응. 우리 할머니 옛말 골아주세요 허면 그 말 옛말이라고 골아주셔.

[조사자] 맨 처음에 아까 그 수뽕 먹을 때 뭐라 하신 거?

[제보자] 이거는 수뽕이 나가 운이 좋아서 나 복인가, 집이 든 예펜이 운이 좋아서 예펜 복인가, 게서 좋아서 그 콩을 좇어 먹었다 죽었다, 약한 콩이라.

• 핵심어: 부처, 콩, 벌거지(벌레), 두테비(두꺼비), 수뽕, 암뽕